

순창군 1000억 투자 섬진강 관광단지 추진

권·체·학·교육·가족·체육 등 5가지 테마별 기본계획 수립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순창군 일대 섬진강변에 1000억여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선다.

순창군은 28일 “전국민의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강천산에 이어 섬진강을 제2의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섬진강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섬진강 개발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섬진강에 잠재된 문화·관광자원을 분석해 5개 테마 24개 사업을 발굴, 1000억여원을 투자해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과 테마별로 묶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또 힐링과 웰빙에 걸맞은 친환경 관광사업과 현재의 관광트렌드에 어울리는 관광과 체험, 숙박을 결합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과 이원화되지 않도록 포지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순창 일대 섬진강에는 장군목 요강바위, 현수교, 산림 테라피, 애항천리 마실



‘요강바위’ 등 기암(奇巖)으로 유명한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내용마을의 장군목과 현수교.

길, 마실 펜션단지, 고뱅이 어살, 향가유원지 등 수많은 관광자원이 많다. 하지만 그동안 보유자원 간의 연계성 및 관광트렌드에 맞는 테마형 관광프로그램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군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섬진강의 자연과 문화·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섬진강을 활성화하고자 ‘잠 좋은 섬진강 여행’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5가지 테마별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세웠다.

테마별 유형으로는 ▲자연의 느끼며 걷는 느낌보 여행(도보형 테마) ▲짜릿하고 다이나믹한 체험 여행(체험형 테마) ▲섬진강 문화를 배우는 교육 여행(교육형 테

마) ▲가족과 함께 떠나는 추억여행(가족형 테마) ▲섬진강변 고향마을여행(체육형 테마)으로 구성됐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남 소식

전국 첫 2기작 고흥벼 올 두번째 모내기

동강면 죽암농장 조평벼 11월 수확 예정

전국 최초로 고흥지역에서 한 논에서 벼 2기작과 그루터기 재생벼 재배가 시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고흥군 동강면 죽암농장(대표 송하국)은 28일 포트육묘 이앙기를 이용해 5일 전에 벼를 수확했던 논 1만3200㎡에 또다시 조평벼를 모내기했다.

죽암농장은 지난 3월 25일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모내기를 한데 이어 2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벼베기를 기록했다.

이번에 심은 벼는 4개월 후인 11월 하순께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확량은 중·만생종 보다 다소 떨어진 6t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이번 시험재배를 통해 고흥지역 벼농사를 두 번 짓는 벼 2기작(二期作)에 벼 2기작과 그루터기 재생벼 재배가 가능한지를 연구하고 조평벼 포트모종의 저온·고온 적응성과 생육상황, 병해충 발생밀도 등을 관찰 조사해 벼 재배기술 보급 등 농가 지도에 활용할 방침이다. 송하국 대표는 “조평벼는 수확시기 가 빨라 태풍에 비교적 안전하고 추석이 전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며 “2기작 재배가 성공을 거두게 되면 농지 이용률 제고는 물론 초저비용 쌀 생산이 가능해져 우리나라 벼농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되살아나는 강진청자의 빛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강진원 강진군수, 황주홍 국회의원 등이 지난 26일 ‘제42회 강진청자축제’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화목가마에 불을 지피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남원시,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 전국 1위

농림부, 전국 58개 시·군 대상

남원시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전국 1등을 차지해 인센티브 1500만원을 받게 됐다. 또 사업시행 주체인 남원시 조합 공동법인(대표 박해근)은 인센티브 500만

원과 해외연수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번 연차평가는 산·학·관·연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농식품부 총괄평가단이 전국 58개 과수산업 발전계획이 수립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평가에서 남원시와 남원시 조합 공동법인은 ▲과수물량의 지역생산량 대비

취급량 60% ▲출하금액 284억원 ▲GAP(농산물 우수 관리제도) 비율 86% ▲보조금 100% 집행 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남원시와 남원시 조합 공동법인은 앞으로 유기적인 정책 연계를 통한 유통 규모화와 일원화, 품목조직 육성 등을 통해

지역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 조합 공동법인 박해근 대표는 최근 부안 변산수련원에서 열린 FTA 기념사업 담당자 워크숍에 참가해 남원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세 일 글

“내장산 백년대계 운동 지속 추진”

이진범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장



“건강한 국립공원, 행복한 국민의 가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이진범(48) 소장은 “내장산 백년대계(百年大計)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과 협력의 공원관리를 통해 내장산 국립공원의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강진 출신인 이 소장은 경기대 토목

공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입사해 치악산사무소에서 첫 발을 내딛던 후 설악산 국립공원 탐방시설 과장, 공단 본부 환경기술부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은주 씨와 사이가 1남 1녀가 있다.

/경진=박기섭기자 parkks@

농촌진흥청, 전북 혁신도시서 본격 업무

농촌진흥청이 전북 혁신도시 시대의 문을 열었다. 농촌진흥청은 전북 혁신도시 신청사로 이전하고 28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양호 청장은 이날 전북 혁신도시 농생명연구단지서 처음 출근해 청사 상태와 이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 수원에 있던 농촌진흥청 본청은 지난 21일 운영지원과 전북혁신도시 신청사에 가장 먼저 집을 풀었으며, 8월 1일 기술협력국을 끝으로 이전을 마무리한다.

또한 농진청 산하기관인 국립 농업과학원도 8월 말까지 이전하며 나머지 국립 식량과학원(190명), 국립 원예특작과학원

(160명), 국립 축산과학원(140명)은 내년 3월까지 옮겨올 예정이다. 한국농수산대학은 12월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시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에 조성 중인 전북 혁신도시에는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하게 된다.

이전 기관 가운데 지방행정연수원과 대한지적공사가 지난해 이전을 마쳤고 올해 6월은 전기안전공사가 이전에 업무를 시작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2월,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내년 3월, 한국식품연구원 2016년 12월 이전할 예정이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내달부터 호남고속철 나주역 정차 확대

왕복 8회→12회로 증가

다음달부터 호남고속철도(KTX)의 나주역 정차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과 지역민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향상된다.

28일 나주시와 나주역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혁신도시 등 역세권 수요변화를 반영해 8월 18일부터 정차역을 조정해 반영기로 했다. 나주역의 경우 기존 일일 상·하행 각 4회에서 2회를 늘린 왕복 12회로 증가된다.

나주역을 경유하는 KTX 정차 시각이 상행선의 경우 오전 8시 25분과 오후 6시 55분 운행 편이, 하행선은 오전 8시

18분과 오후 7시 53분 운행 편이 각각 신설될 예정이다.

이번 KTX 나주역 정차횟수 증편으로 공동혁신도시 이전 기관 임직원들과 지역민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광주~목포 구간 노선 선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구 시장은 “그동안 나주시와 시민,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편 건의를 해온 결실”이라며 “나주는 영암과 강진, 장흥과 완도, 진도와 해남으로 이어지는 남서부 내륙교통망의 중심으로 전남의 거점역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저렴한 고급 별장

정남진 별장은?
접근성, 주변 환경, 천혜의 경관이 어울린 고급 수입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로 남해안 최고의 별장!
광주에서 50분 거리에 소재한 정남진 별장은 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

토지 4,900㎡
건물 245㎡
매가 협의

- 정남진 장흥,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에 선 착장과 해수욕장, 바다뷰시,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명소에
- 캐나다산 수입 목재 건축물(100%)에 수입 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완벽한 단열, 방음, 방습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습주는 별장.
-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
- 정남진 별장은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전화상담 사절.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 내방 바랍니다.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송창석
011-642-7777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양덕 유재관

명품 가든/명품주택 급처분

평안한 노후 안정적인 수입 두 마리 토끼 잡을수있는 명품 다이어 몬드 전원 가든과 주택을 안내합니다

- 전남 영암 13번국도 c자코너
- 대지 1,053㎡
- 가든1층 133㎡
- 주택1층 80㎡
- 노래방 50㎡

2009.6월에 황토적벽돌 9만매를 특수 주문제작하여직접 시공했습니다 4계절 냉난방없이 평균20도를 유지하는 [명품 가든과 주택]입니다

월출산 방면 최고 요충지로서 가든 영업또한 1일100만원~200만원을 유지하고있는 특급상권입니다

급처분 가격은 원가수준인 4억4,700만원입니다

동부소방서4거리(대인동312-1)
☎010-6495-3787/직통062)229-0088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급매매 경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군서농공단지인근,도로접 정남향:전원주택건축가능
전 1,613㎡
최저가 1,100만원

신안 증도면 대지 4,858㎡
엘도리도500m거리 펜션부지,계획관리지역
최저가 3억994만원

화순 도곡면 도곡원천영 3.4층 무인숙박시설
대지 2,057㎡
건물 2,332㎡,
주변개발호재있음
북향형,실내 고급인테리어
감정가 24억9천만원
최저가 17억4천만원

*이외 다수물건 확보
경·공매전문 이주원
010-7171-7610

010-3215-9969